2021년 8월 11일 평동교회 수요성서연구 자료. - Ver.1 공동읽기와 묵상

제목 : 레위기 13. 생명의 피 – 속죄의 피

본문 : 레위기 17장 10절~16절 /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 거룩한 일상을 위한 시작

1. 레위기 17장은 제물과 피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16장까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했다고 한다면 17장부터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당시의 이방 종교들처럼 거룩을 어떤 특정한 장소와 의식에 국한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정신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레위기 17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① **레위기 17장의 위치**와 관련되어 16장과 연관해서 살펴야 하는지 아니면 18장과 관련해서 살펴야 하는가? ②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맥과는 상관없이(?) **10~11절에서 피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설명**이 왜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③ **제물이 아닌 식용을 위한 도축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1)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각종 규례를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17장을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모든 규례를 살피기 전에 기억해야 할 대전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 레위기에 의하면 짐승을 잡아야 할 때 무엇에 주의해야 했습니까?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짐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욱 바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에서는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이와 함께 새롭게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 이상의 제물과 피에 관한 규례는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적용범위와 대상 그 기한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식용을 위한 일반 도살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신명기 12장 15~28절의 내용을 대비하여 살펴보십시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 일상의 거룩을 위한 기초에 대하여

2. 17장의 법들은 모두 피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용을 위하여 잡든 아니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죽이든 함부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지 피를 먹고 섭취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과 여러 상황 아래서 피와 관련된 문제로 실수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하는 17장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피의 의미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피와 관련된 관심은 당사자의 상황과 그가 경험해온 문화배경에 따라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7장은 앞으로 다루게 될 **일상의 거룩을 위한 기초로서 피의 의미**를 다시금 소중하게 새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 18~2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피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로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피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입니까?

#. 레위기의 각종 규례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경직되곤 합니다. "법이요" 하면 누구라도 다른 여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조차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계명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한 것은 엄격한 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 만큼이나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편하자고 하면 무조건 금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지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아니십니다.**

1) 홍수 이후 노아에게 하나님이 동물을 먹거리로 허락하시면서 명령하신 최초의 규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창 9:3~6) 레위기에서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피에 대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피에 대한 처리에서 특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피에 대한 합당한 처리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에 뿌려진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가 행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는 4절에 기록된 피 흘린 자라고 하는 말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כָּפַר(3722, 카파르) - 제단에 뿌려 / 속하느니라

3)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생물이든지 그 피든지 주의해서 다루어야 했습니다. 15절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규례인가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런 구약(레위기)의 피에 관한 규례에 비하여 **유월절의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그 의미**는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십시오.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그토록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피로 이루신 속죄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